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 ...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 한마음 대회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연장에서 열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 한마음 대회'에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장, 정강선 도체육회장 등 참석자들이 전주올림픽의 차별화된 가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공방

“절차 하자” VS “무효 아니다”

김택규, 32대 배드민턴협회장 선거 결과 불복... 직무정지 신청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문 원광대 교수가 당선된 것과 관련 김택규 전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양측이 선거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시작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2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 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채권자인 김 전 회장은 이날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선거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선거인과 선거인 명부가 변경되면 다시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기존의 위원회를 그대로 추진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선거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추첨을 다시 진행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번상 뒷번호를 준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후보자들은 기존 선거운동 기간인 1월9일부터 선거를 할 수 있었지만 채권자의 실제 선거 운동 기간은 1월20일부터 불과 3일에 불과했다”며 “시간이 부족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고 선거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무자인 김 회장 측은 “의결 하자를 주장했다지만 선거운영위원들은 새롭게 구성됐고 선거에 대해 추인하는 대신 재의결하는 방식을 취해 선거 절차를 진행했다”며 “채권자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운영위가 독립적·중립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선거가 무효라거나 당선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선거인 수가 바뀌긴 했으나 당초 선거인 수에 비해 1월 23일에는 3명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명부나 후보자 추

첨 기호가 중요한 것은 상식”이라면서도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해달라”고 김 전 회장 측에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조금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차기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재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는 올해 1월8일 후보자 결정 사유를 심사한 끝에 김 회장의 등록을 무효로 했다.

이에 김 회장은 1월9일 선거 중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선거운영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김 회장은 재선에 나섰다.

선거에서 패배한 그는 “선거운영위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뉴시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볼링 AG 정식 종목 채택 적극 추진”



대한체육회는 유승민 회장이 10일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식 대한볼링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전 의원과 정 회장은 볼링이 하계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

했다.

아울러 2026년·2030년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체육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제관계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회장은 “볼링이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한볼링협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도 전북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체육 꿈나무 육성 엘리트 체육 저변 확대

도, 2025년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
바이애슬론 포함 15개 단체에 2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체육 꿈나무 육성과 엘리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공모 사업을 확정하고, 총 15개 종목단체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지원되는 13개 종목(역도, 컬링, 검도, 탁구, 사격, 테니스, 펜싱, 조정, 스쿼시, 산악, 카누, 자전거, 수영)과 신규 지원

종목인 빙상과 바이애슬론을 포함해 총 15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각 종목별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도자 비용, 용품 및 장비 지원, 대회 참가 경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2018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전북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지난 7년간 총 90개 사업에 2,948명의 청소년이 참여했고, 이

중 600명이 선수로 등록하며 지역 엘리트 체육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역도, 사격, 조정 등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종목에도 초·중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수 및 동호인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와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이번 지원 결정을 해당 종목단체에 통보하고, 종목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훈련과 자체 리그 운영, 대회 참가 등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회 및 종목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다양한 세부 사업을 발굴해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프로야구 2024시즌 MVP 김도영, 화보집 발간

지난해 프로야구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한 김도영(KIA 타이거즈)의 활약을 돌아볼 수 있는 화보집이 공개됐다.

김도영의 에이전시인 MVP스포츠는 12일 “김도영의 2024시즌 활약을 팬들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화보 스토리북

‘더 영 킹(The Young King)’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화보 스토리북은 ‘더 맨(The Man)’과 ‘더 보이(The Boy)’, 2권으로 구성됐다.

한 권의 가격은 2만9,000원, 세트는 5만8,000원이다. /뉴시스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